

	<h1>보도자료</h1>	2021. 12. 23. (목)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선투표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31 -
 “아기천사 함께 기다리겠다”
 ‘난임 시술 지원 강화’ 공약 발표

- 육체·경제·정신적 삼중고 겪는 난임, ‘20년 신생아 10명 중 1명 난임시술로 출생
- 난임시술 별 칸막이 간소화, 과배란유도제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 난임 조기검사 지원 강화, 난임부부 심리상담 지원 확대 등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31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난임 시술 지원 강화’를 발표했다. 난임 당사자의 관점에서 기존 정책을 개선하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후보는 “난임의 삼중고는 겪어보지 않고선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정도”라며 “육체적 고통, 경제적 부담도 힘든데 정신적 고통까지 상당하다”고 당사자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이어 “아기를 기다리는 분들의 절박함을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국가가 부족함을 더 채우겠다”며 네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체외수정 시술 종류별로 나뉘어있는 지원 금액·횟수의 간소화를 공약했다. 현재 난임은 신선배아·동결배아 등 시술 종류별로 지원 횟수가 정해져 있고 회차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다. 이러한 구조가 취지와 달리 ‘칸막이’로 작용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총 지원 회차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과배란유도제 같이 시술에 꼭 필요한 약제비 등의 보험 급여화 추진도 발표했다.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난임 조기검사 지원 강화도 제시했다. 난임 여부 확인을 위한 남녀 기초검사를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켜 난임의 조기 예방과 건강한 출산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난임에 관한 정서·심리적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난임시술 실패나 유산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담 바우처 지급과 주요 난임시술기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난임시술은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과 같다고 한다”며 “그 터널을 뚫고 지난해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기를 기다리는 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겠다. 언젠가 올 아기천사를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2630-0004

참고자료

○ 난임시술 지원사업 현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2020년 496억원(국비 227억 원, 지방비 269억 원)배정, 보조 인력 비용 22억 원(국비 10억 원, 지방비 12억 원)배정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선정
- 지원 범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신선 및 동결배아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자궁 내 정자주입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

< 시술 종류 및 여성 연령별 시술비 지원(상한액) >

방식	횟수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5회	40만원	
인공수정 (자궁 내 정자주입)	1~3회	30만원	20만원	
	4~5회	20만원		

*모든 금액은 최대 지원액 기준

○ 난임시술 건강보험 인정 횟수 개편 현황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인정 횟수 확대(21.10.28) >

대상시술	현행	개선	비고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	본인부담 30%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 50%)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좌동)	

○ 난임시술 건수 및 진료비 현황(국민건강보험)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시술건수	총진료비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2017.10월~	32,569	44,158	30,818	13,340
2018	136,794	227,662	157,810	69,852
2019	148,303	255,098	174,335	80,763
2020	168,260	307,211	207,034	100,177
~2021.10월	155,750	268,130	180,678	87,452

- ▶ 기간: 2017.10.1. ~ 2021.10.31.(2017.10월부터 건강보험적용, 2021.12.7. 발체)
- ▶ 난임 시술자 중 요양기관 난임시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특정기호 F021) 청구 완료건 기준, 여성기준, 의료급여 제외, 건강보험 DW 기준
- ▶ 비용: 해당 기간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난임 시술 비용

○ 난임시술에 의한 출생아 수는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시술비 지원 횟수 증가 등으로 상승 추세

- 난임시술비 지원 출생아 비율: 1.2%(’06)→2.4%(’11)→5.8%(’17)

<난임시술비지원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 이용 출생아 비율>



주: 2017년 10월 이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의 신선배아 시술대상으로 축소함에 따라 2018년 출생아수의 전년도와의 단순 비교불가

- 자료 출처: '난임치료 확대 등 난임지원을 위한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등